

보도 자료	경남지역일본군‘위안부’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
2023.3.30	경남 통영시 중앙로 125, 3층 055-649-8150 herstorygn1028@daum.net 담당 : 집행위원장 송도자 010 3567 4003

제목 : 「경상남도 일본군 ‘위안부’ 피해자 관련 심화 자료 조사·발굴·수집 연구용역」 수행업체 선정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

-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- 본 단체는 2019년 10월 출범하여 일본군 ‘위안부’ 문제의 진실과 정의를 기록하고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 경남지역 일본군 ‘위안부’ 역사관 건립(이하 역사관)을 민간에서 추진해왔으나 코로나 19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역사관 건립운동이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, 2020년 8월 14일 경상남도지사는 기림일 기념식장에서 도립 역사관 건립추진을 도민들에게 공식 선언했습니다.
- 이후 경상남도는 2021년 「경상남도 일본군 ‘위안부’ 자료 수집 및 역사관 건립 추진방안 연구용역」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해 12월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조사된 자료의 부족으로 심화 자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경상남도는 2022년 11월, 2차 용역인 「경상남도 일본군 ‘위안부’ 피해자 관련 심화 자료 조사·발굴·수집 연구용역」(이하 심화조사연구용역) 입찰공고를 내어, 우선협상대상자로 (사)21세기산업연구소(이하 21세기)를 선정하였습니다.
- 21세기는 1차 연구용역 수행 당시에도 일본군 ‘위안부’ 전문연구자가 한 명도 없었기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, 최종보고회 당시에도 용역결과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의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은 물론 최종보고서 또한 조사결과물을 제대로 담아내지를 못하였던 업체였습니다.
- 그럼에도 올해 2차 심화조사연구용역 수행 업체로 21세기가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, 본 단체는 1차 용역 때 문제가 되었던 업체가 또다시 경상남도에 의해 선정된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, 정보공개와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 불가라는 짧은 회신만을 받았습니다.
- 이에 본 단체는 심화조사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. 귀 언론사의 아낌없는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.

경남지역일본군‘위안부’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

공동대표 이경희(상임), 윤소영, 이병하, 전옥희, 조형래

■ 기자회견 개요

- 일시 : 2023년 4월 5일(수) 오전 10시 10분
- 장소 : 경남도청 브리핑룸
- 참석 : 경남지역일본군'위안부'추진위원회 회원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
- 진행순서
 - 기자회견 취지 설명
 - 발언 1
 - 발언2
 - 입장문 낭독
 - 질의응답